살았다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	
智州也上之人	배포일자	2021년 11월 4일(목) 총 4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철도과 부서	담당자	• 도시철도팀장 이상열 ☎440-3916 • 담당자 김도균 ☎440-3918			
사 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원도심에 친환경 신교통 '트램'도입 시동

- '부평연안부두선(트램)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착수, 신·원도심 균형발전 기대 -
 - 2022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위해 만반의 준비 할 것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원도심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신·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지원할 '부평연안부두선(트램)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이 11월 4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 12월 인천시가 국토부에 신청해 금년 하반기 승인·고시 예정인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에 2순위로 반영한 '부평연 안부두선'의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부평연안부두선'은 원도심 주민들의 이동편의와 교통복지를 위해 친환경 신교통 수단인 트램 노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부평역~가좌역~인천 역~연안부두까지 18.72㎞을 연결하고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1곳을 신설하는 총 사업비 3,935억 원이 소요되는 도시철도 사업이다. 인천시는 이미 '19. 3월 착수한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용역'에서 원도심 재생 활력 및 원도심 도시철도서비스 확충을 위해원도심 수혜도가 높은 '부평연안부두선'의 신규노선을 발굴하고 경제성(B/C≥1.05) 검토도 완료한 상태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금번 용역을 통해 '부평연안부두선'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대안노선 검토,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타당성(경제성 및 재무성) 검토, 종합평가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검토해 내년 기재부의 예비타 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사전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트램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19. 10월 「광역교통 2030」에서 향후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 방향으로 신교통수단인 트램을 적극 도입해 도시 내부에서의 접근성과 속도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류윤기 시 철도과장은 "신·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원도심 대 중교통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부평연안부두선 사업이 내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평연안부두선 사업 화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지금부터 잘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사업개요 및 노선도

붙임1

부평연안부두선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개요

□ 용역개요

O 용 역 명 : 부평연안부두선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O 계약금액: 249,600천 원

O 주요과업: 장래 교통수요 예측, 노선 대안 설정 및 분석,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경제성·재무성 분석 등

(사업개요)

○ 사업구간 : 부평역~가좌역~인천역~연안부두

○ 사업규모: L=18.7km,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사업비 : 3,935억원(국비 60%, 지방비 40%)

□ 추진사항

- O 2019.11. : 「2030 미래이음」 발표
 - 부평 군용철로와 석탄부두 선로를 활용한 '부평역~캠프마켓~가좌~동인천 ~인천역~연안부두'를 잇는 원도심 트램 노선 구축
- O 2020. 7. : 「민선7기 후반기 시정운영계획」 발표
 - 신도시와 원도심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친환경·고품격 트램 5개 노선 (L=72.3km) 도입
- O 2020.12.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승인 신청(市→국토부)
 - (부평연안부두선) 사업비 3,935억원, B/C 1.05, 투자 2순위
- O 2021. 7. ~ 9. : 용역 입찰 공고
- 2021.10. : 수의계약 체결 추진
- 2021.11. : 용역 계약 및 착수

추진계획

- O 2022.상반기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市→국토부→기재부)
- O 2022.하반기 : 용역 완료

붙임2

계획 노선도

